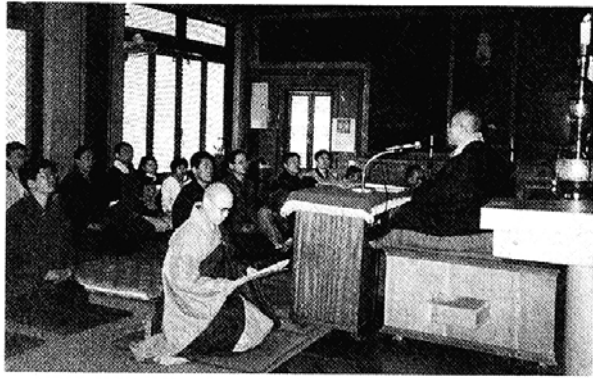


“국민에 질높은 봉사” 다짐

현장탐방 정부 과천청사 ‘정불회’ 철야법회

30여명 염불·참선정진 오계 받고 신심 재무장

13일 저녁 8시 봉선사. 법당에서 예불을 올리는 불자들의 목소리가 어둠이 내려앉은 경내의 경건함을 더한다. 두손을 모으고 합장하는 대신 법요집을 들고 예불문을 열심히 읽어내려 가는 불자들. 정부 과천청사 정불회(회장 강명수 수산협동조합중앙회 부회장) 회원 30여명이 봉선사에서 1박2일동안의 용맹정진에 들어갔다.



◇월운스님에게 수계법문을 들은후 5계를 받고 있는 정불회 불자들.

이날 철야정진은 회원들 스스로 지난해 IMF 경제한파의 영향으로 잠시 주춤했던 정불회 활동을 반성하고 새롭게 정비, 각자의 신심을 증진하는데 의기투합해 이뤄졌다. 자리에는 정년퇴임과 구조 조정으로 퇴사를 했음에도 계속 정불회 활동을 하겠다는 몇몇 회원들이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불교 수행의 본질은 중생의 속성인 법욕을 평정해 영원한 대자유를 성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불제자가 가야 할 길입니다.” 지도법사 김정호 평생불자회 회장도 회원들의 취지에 뜻을 같이 하고 재차 수행의 본질을 강조했

다. 철야정진에 앞서 회원들은 김정호 지도법사로부터 불교기초교리와 참선법, 염불법, 목경법, 사찰내 예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직접 해보며 ‘초차불자 딱지’를 떼 내었다. 바로 이어 정불회 회원들은 날이 밝아 올 때까지 각자 나름대로 염불, 목경, 참선을 하거나 절을 하면서 용맹정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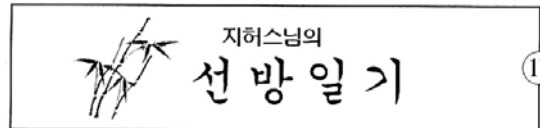
다음날 정불회 회원들은 월운스님(동국대 역경원장)으로부터 5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번뇌는 한량없는 업(業)을

만들어 세세생생 윤회하기 마련이다. 우리가 부처님 계몽을 받는 것은 생사윤회를 끊고 해탈열반을 얻게 되는 지름길이고 그 터전이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정불회 총무 장재군 사무관(공정거래위원회)은 “정성을 들여 용맹정진을 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진 다”며 “자주 이런 기회를 만들어 불심으로 공무원 본연의 자세에 투철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심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세번 이상 경책은 군더더기



〈지난 호에 이어〉
큰 대자로 누우면 이 고통에서 해방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만사휴하다. 고행의 극한 상황을 연상해본다. ‘실산에서 6년간’ 눈이 떠지고 허리가 펴진다. 얼마가 지나면 또 눈이 감겨지고 허리가 굽어진다. ‘골고도의 십자가’ 눈이 떠지고 허리가 펴진다. 그러나 얼마가 지나면 다시 눈이 감겨지고 허리가 굽어진다.

그러다가 비몽사몽간에 뒷방에서 잠자는 스님의 코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눈이 번쩍 뜨인다. 수마도 고통도 물러갔다. 화두가 앞장 서며 빨리 가잔다. 길은 멀고 험하지만 쉬지 않고 가면 된다면서, 부처님은 가르치고 있다.

“분명히 열반은 있고 또 열반에 가는 길도 있고 또 그것을 교설하는 나도 있지만 사람들 가운데는 바로 열반에 이르는 이도 있고 못 이르는 이도 있다. 그것은 나로서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나(如來)는 다만 길을 가리킬 뿐이다.”

불교의 인간적임을 그리고 인간의 자업자득을 교시하신 극처다.

중생이 고뇌에서 해방되는 것은 엉뚱한 기연 때문이다. 잡다하고 평범해서 무심히 대하던 제 현상 가운데서 어느 하나가 기연이 되어 한 인간을 해탈 시켜준다. 불타는 효성(曉星)에 기연하여 대각에 이르렀고 원효대사는 추위에 서산대사는 계명(鷄鳴)에 기연하여 경성했다고 한다. 그러나 인간을 해탈시키는 그 기연이 기적처럼 오는 것은 아니다. 고뇌의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러 끝내 좌절하지 않고 고뇌할 때 비로소 기연을 체득하여 해탈하는 것이다. 극악한 고뇌의 절망적인 상황은 불타없는 평안이다. 왜하면 극악한 고뇌의 절망적인 상황은 두번 오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죽음을 이긴 사람에게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과 같다. 죽음은 결코 두번 오지 않는다.

나는 뒷방에서 들려오는 코고는 소리로 인해 수마를 쫓을 수가 있었다. 평소에는 코고는 소리를 들으면 나도 잠이 왔었는데,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다섯 스님이 또 탈락했다. 사흘을 넘긴 스님들은 끝까지 잘 버티고 견디었다.

남월(臘月) 8일은 부처님 성도일이다. 우리도 새벽에 용맹정진을 마쳤다. 아침공양은 활짝이다. 전대중이 배배리 먹고 산행길에 나섰다. 몸을 풀기 위해서다. 중대에 올라 보공에 참배하고 북대를 거쳐 돌아왔다. 눈길이라 힘이 들었지만 무척이나 재미 있었다.

■ 12월 10일 심리작용

산달이 깊어 가면서 폭설이 자주왔다. 산하는 온통 백설 일색이다. 용맹정진에서 탈락했던 스님들은 자꾸만 나타내져 갔다. 탈락했다는 심리작용의 탓인

지 스스로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뒷방을 차지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입승 스님으로부터 몇차례 경책도 받고 시간을 지켜달라는 주의도 받았지만 잘 지키질 못했다. 그때마다 몸이 아프다면서 괴로운 표정을 지어보이면 그것으로 끝났다.

경책은 세번까지 주어지는데 그래서도 효과가 없으면 그만이다. 세번 이상의 경책은 군더더기요. 중노릇은 자기가 하는 것이지만 대인 해탈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기를 기다리다가 기회만 오면 갖은 방법으로 장난기를 발취한다.

만두를 여자의 그것을 흉내내어 오목하게 빛나는 하면 남자의 그것을 흉내내어 기다리게 빛기도 한다. 극히 희화적이다. 성본능이 억제된 상황하에서의 잠재의식의 발로라고나 할까. 그래서 종교적인 미술일수록 남녀의 뚜렷한 선을 무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장난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만두속에 아무도 모르게 고추가루를 넣어 빛나는 하면 깨소금을 넣어 빛기도 하고 무우쪽을 넣어서 빛기도 했다. 드디어 만두국 공양이 시작되었다. 별식이어서 발우 가득히 받아 간사한 식성을 달래가면서 식욕이 허락하는대로 맛있게 먹는다.

드디어 장난기의 재물이 된 스님들의 입에



그림·이준석

용맹정진 탈락 세 스님 바라지고... 극악한 절망에서 좌절 않을때 해탈

용맹정진을 무사히 넘긴 스님들은 힘을 얻어 더욱 분발하여 공부에 박차를 가했다.

뒷방에 죽치고 앉았던 스님 세 분이 바람을 지고 떠나갔다. 절제기간이니 갈 곳은 뻔하다. 지면이 있는 어느 독실이 절로 갈 수 밖에. 선방은 영영 하직하는 스님들이다. 육신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깊어 든 스님들이다.

■ 12월 15일 별식의 막간

만두국을 먹는 날이다. 원주스님의 총지휘로 만두 율력이 시작되었다.

숙주나물 표고버섯 김치 김을 잘게 썰어서 혼합한 만두 속이 만들어지자 몇몇 스님들이 밀가루를 반죽하여 얇게 밀어주면 밥그릇 두경으로 오려내어 대중 스님들이 빙 둘러 앉아 속을 넣어 만두를 빚어낸다. 여러 스님들의 솜씨라 어떤 것은 예쁘고 어떤 것은 무박하고 또 어떤 것은 속을 너무 많이 넣어 곧 터질듯 하여 불안한 것도 있다.

장난기가 많은 스님들은 언제나 기회가 오

서 비명과 탄성이 폭발한다.

“아이고 매워.” 고추가루를 씹은 스님의 탄성이다. “아이고 짜.” 소금만두를 씹은 스님의 비명이다.

한쪽에서는 비명과 탄성인데 한쪽에서는 키득거리며 우스워 죽겠다. 그러다가 웃는 쪽에도 예의 장난 만두가 씹혔는지 상이 금방 우겨지상으로 변한다.

하필이면 선방의 호랑이 격인 입승스님의 그릇에 고추가루 만두가 들어갔는지 후후거리면서 국물을 흘려 마시고 입맛을 썩썩 다신다. 그러나 비명은 없다. 역시 선방의 백전노장이다.

스님들의 공양태도는 극히 조용하다. 그래서 엄숙하기까지 하다. 입안에 식물(食物)이 들어가면 그 식물이 보이지 않도록 입을 꼭 다물고 씹는다. 흘려주거나 씹지 않고 우물우물 씹어서 삼킨다. 그렇다고 잘 씹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오래 씹되 조용히 씹고 숟가락 짓가락 소리가 없어야 하고 발우 캐리 부딪치는 소리가 없어야 한다. (계속)

세무사·국세청불자회 합동법회



◇세무사불자들의 모임 세무사·국세청 불자회가 17일 봉선사에서 합동법회를 갖고 인연을 나눴다.

세무사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세무사 불자회(회장 정은선)와 국세청보리회(회장 김정부)는 17일 봉선사에서 합동법회를 봉행했다.

같은 직종에 일하는 불자들이 법회를 통해 신심을 다지고 교류를 증진,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날 법회는 4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여분에 걸친 목경, 삼귀의, 반야심경, 법어, 신입회장 인사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법사로 참석한 원해스님(봉은사 주지)은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며 “업무수행을 할때 어려움에 봉착하더라도 항상 마음 속 ‘부처지리’를 염두해 지혜롭게 인내하고 극복해 나가는 불자가 되길 기

원한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불자회와 국세청보리회는 앞으로 두 달에 한번 합동법회를 갖고 상·하반기 한차례씩 성지순례를 함께 개최할 계획이다.

금강메아리 월악산 시산제

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회장 윤부운)는 21일 월악산 정상에서 시산제(始山祭)를 올리고 월례산행을 실시했다. 이날 산행에 참여한 40여명의 회원들은 미리 준비해 간 음식들을 차려 시산제를 올리고 올 한해 ‘무사 통반’을 기원했다.

교사불자전 전경에 치료비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임원숙)는 13일 지난해 조계종 사태 당시 부상당한 전경 전병주 경장이

우리 모임에선

입원해 있는 경찰병원을 찾아 치료비 2백28만원 전액 전달하고 위로했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는 서울대병원에서 팔목과 대퇴부 뼈가 으스러져 10여개의 철심을 박는 대수술을 받은 전경장이 정경장 아버지마저 팔목 골절상을 입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운데 수술비 7백여만원을 조달하지 못해 예를 태우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지난 1월부터 회원들을 중심으로 모금운동을

펼쳐왔다.

국립의료원 범우회 무료급식

국립의료원범우회(회장 황영희)는 28일 오후 4시부터 6시30분까지 서울 중로구민회관에서 무료탁도인 및 실직자들에게 무료 급식한다. 5~7명의 범우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이날 급식에서는 3백여명의 무의탁노인 및 실직자들에게 따뜻한 한끼 식사가 제공될 예정이다.

국립의료원범우회는 매월 1일과 15일 법회를 봉행하고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연등의 미학 장엄 팔각등

장엄 팔각등은 전통적 미와 현대적 감각을 함께 갖춘 산뜻한 색상과 편리한 보관, 견고함을 자랑하는 연등입니다. - 정성을 다해 제작한 이 전통연등을 삼보전에 올립니다 -

붕족 장엄 팔각등 (원색칼라)

실용신안등록 : 제098634호

만다라 장엄 팔각등 (원색칼라)

연등 납품 및 보관시

연등 조립방법

- 1 바깥 부분을 대각선 방향으로 끼운다.
- 2 돌출된 중간 부분을 눌러서 밀어 넣는다.

연등이 변하고 있습니다

장엄팔각등은 각종 행사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며 행사기간 내내 사찰과 그 주변을 밝게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1. 평상시 사찰 장엄으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합니다. 밝고 다양한 색디자인과 단정모양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불 도량의 장엄함을 느끼게 해 줍니다.
2. 야간 점등후의 모습은 더욱 화려합니다. 선명한 색상 오색으로 이어진 야간 점등 후 모습은 한국전통으로써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3. 눈, 비, 거센 바람에도 파손 변형되지 않습니다. 종이(PP)가 아닌 PP(특수 광고물 소재)로 제작되어 물리적인 힘에도 찢어지거나 장대비 속에서도 결코 젖지않고 본래의 모양을 유지합니다.
4. 색상이 선명합니다.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과 고전적 단정 모양을 첨가한 장엄 팔각등은 선명하고 밝은 색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5. 세척하면 새것처럼 깨끗해집니다. 기존 팔각등에서 볼 수 없는 특징으로 사용이 오래 된 경우 분해하여 세척한 후 조립하면 새 것처럼 깨끗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운반, 사용, 보관이 간편합니다. 장엄 팔각등은 기존의 팔각등과는 달리 간단히 조립사용할수있게 제작되었으며 사용후 펼친 상태에서 간편하게 보관이 되므로 별도의 보관 창고도 필요치 않습니다.

부처님 오심을 깨끗한 환경으로 축복합시다! 집안과 내집 앞길을 깨끗이 하고 도로에 널려있는 쓰레기를 치우며 맑고 향기로운 마음으로 이날을 맞이합시다. 만 중생의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라도 연등부처님 제세시에 툇뎀길울 긴 머리카락으로 깎아 연등부처님께 공경을 표했습니다. 우리모두는 부처님을 사랑합니다. 너무 시야본사 석가모니불

주문 전화 : 02-732-1522 / 737- 8881(대표)
주문 팩스 : 02-737-0697
인터넷 주문 : (http://mail.buddhapia.co.kr)
납품 방법 : 신청장소로 직배, 택배 발송

■ 판매가 : 2,300원 ■ 출대, 등걸이 포함
* 200등 이상 주문 사찰에는 판매가의 10%를 할인해 드립니다. (등당2070원)
* 500등 이상 주문 사찰에는 판매가의 20%를 할인해 드리며, 사찰명을 연등 자체에 넣어드립니다. (등당1840원)

www.buddhapia.com (http://mail.buddhapia.co.kr)